

OUTLINE

- (44) -

196.

말씀: 롬 7:1-4

요절: 롬 7:4

로마서 6장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한 진리를 선포했다면 7장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한 진리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성도들을 더 이상 죄 아래 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아야 합니다(벧전2:16). 구원받은 후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 주면 다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죄에 대해 죽었으며, 율법에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롬6:14)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7장은 성도들이 삶에서 겪는 경험적인 내용들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늘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롬6:7), [... 가](롬6:14)는 위대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죄에게 끌리고, 패배하는 경험의 연속으로 인해 괴롭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불신자 시절에 겪지 않던 갈등, 고뇌를 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형성된 새로운 성품과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 우리를 끌던 육신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7장의 핵심 어휘는 ‘율법’(16구절에서 24회 등장)과 ‘나’(16구절에서 33회에서 등장)입니다. 온통 이 두 단어가 절절이 도배를 하다시피 합니다. 구원받을 때 내가 한 일이 없듯이 구원 이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걸으시고, 활동하시고,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후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영적 생활을 하려 하다가 실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에 끌려오는 자신을 볼 때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데 필히 한번 씩 경험하는 로마서 7장의 진리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 체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 (가)

?](1).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른 형제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로마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는 유대인 형제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일찍부터 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법률이 엄격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자랑거리가 ‘법률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법에 의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신정일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자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결 편합니다. 이는 성경이 법전이요, 죄와 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법률 용어들이 나옵니다.

법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유대의 율법이든 회교의 율법이든 로마의 법이든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의 법이든 죽은 자를 지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상식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들도 죽으면 거기서 실려 나옵니다.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해도 죽으면 출소시킵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어떤 법률적 제재도 죽는 순간 끝이 납니다. 법적 의무는 죽는 순간 다 해제됩니다. 법은 산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먼저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롬6:6-7).** 죽은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율법 역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가
가 .](롬6:14). 법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임을 다 압니다.

2절입니다. [

.](2). 이 부분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법에 의해 배우자에게 매여 있습니다. 남편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정조의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7:4, [가
가 .](고전7:4).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는 양심의 문제 이전에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음입니다. 율법은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출20:14, 레20:10). 로마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여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하고 무서운 율법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결혼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고린도전서 7:39, [가

.](고전7:39).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혼자 과부로 살든지 다른 남자에게 가든지 자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조의 의무’를 죽은 후까지 연장해서 ‘열녀비, 열녀문’을 세우기도 했지만 법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입니다(창2:23-24).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이 법을 깨뜨립니다. 마귀들은 가정을 깨뜨림으로서 지역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 부부들은 결혼에 대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구약과 신약에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0:6-9, [가

가 .](막10:6-9). 결혼의 법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합하신 이 결합은 죽음을 통해서만 나누어집니다. 한 쪽이 죽으면 결혼의 법, 남편의 법에서 해방 됩니다. 때로 우리는 신문 지상에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남편을 독살하는 독부(毒婦)들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 학대하는 남편, 자기를 무시하는 남편, 매일 술에 취한 남편, 짐승 같은 남편 등, 무능력한 남편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남편이 죽기만 기다리거나 직접 남편을 죽이는 무서운 여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죽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해야 부부 관계가 죽고 죽이는 그런 살벌한 관계가 된 원인은 '죄'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가 .](3). 이것은 유대에서나 로마에서나 같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립니다.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매장됩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서는 이런 짓을 해도 그냥 이혼 사유가 될 뿐이지 아무 것도 아닌지라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2-3절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성경적 기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리를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간부(姦婦)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만이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결혼의 법에서 합법적으로 해방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죽음'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남편이 누구이고, 아내가 누구인가? 란 문제로 다양한 주석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율법이고 아내는 우리다." 시중에 있는 로마서 주석을 펴면 90%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Watchman Nee는 말하기를, "남편인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폐해될 수도 없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일점일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죽일 수도 없고 죽기를 기다릴 수도 없기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Normal Christian Life)이란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깊이 있는 강론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 과연 우리의 남편이었던가? 입니다. 주님께서 율법과 우리가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규정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율법의 아내였습니까? 그런 비슷한 언급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언제 율법을 남편으로 받아 들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율법과 결혼했습니까? 저는 율법과 결혼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옛 남편이요, 우리의 혼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몸이 멸해지고(롬6:6), 우리의 혼은 영적 할례를 통해 몸과 분리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 들어온 주님을 새 남편으로 맞아 결혼한다는 것입니다(Peter Ruckman). 그럴 듯한 해석이긴 하지만 몸이 남편이고 혼이 아내란 논리 역시 성경 어디에도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비유로 해석하자면 차라리 죄가 남편이라고 말한다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남편이 되고, 율법이 들어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죄가 넘치게 해 버렸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Hp Yoon).

그렇다면 로마서 7:2-3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온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란 예로 부부 관계 즉 결혼의 법을 예로 든 것입니다. 결혼의 법은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죽어도 그 지배력을 잃어버린다는 일상적인 예요, 가장 알기 쉽고도 흔한 예입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아내가 누구인지 알레고리(allegory)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은 바울이 알레고리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설명한 것입니다. 죽음은 율법의 권능과 지배, 율법의 진노와 저주,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은 상식입니다. 결혼의 법을 통해서 이 진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없는 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그것을 간음이나? 재혼이나?” 결정하는 것은 그 여자의 남편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것뿐입니다. 법은 산 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뿐 죽은 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절입니다.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란 말은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인이든 바바리안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누구나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믿는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얼마나 친밀한 호칭입니까? 육신의 형제들보다 믿음의 형제들은 훨씬 더 친밀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은 전혀 율법을 알지 못하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율법에 눈을 뜹니다. 믿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기껏 아는 것이라고는 ‘십계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부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율법을 지키려 하고 또 지켜야 하는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모세의 율법을 알고, 배우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본래 율법 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로 율법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은혜, 믿음, 성령을 육신, 행위, 노력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 줍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고 배우는 말씀이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율법의 멍에와 짐을 저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의 짐, 율법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이미 해방된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흔들렸고, 미혹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안식교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거룩한 율법의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 는 등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4).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법은 산 자들이 대상입니다. 법의 유효기간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죽었다면 법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의롭고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죽은 것은 우리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이 죽었다면 당연히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에 율법이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 지키기 어렵다며 율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에 율법의 권능, 율법의 진노에서 해방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으로 치우치는 등의 극단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요8:32).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다시 4절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4a).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율법을 범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며, 죄를 깨닫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 율법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 ▶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롬7:4),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갈3:13a),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며”(엡2:15a),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손으로 기록한 규례들을” 지우셨습니다(골2:14).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갈2:19a)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동일하게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골2:20)이라고 합니다.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 ▶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요1:14).
- ▶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딤후3:16).
- ▶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히2:16).
- ▶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 ▶ 주님의 몸이 죽으셨고, 몸이 일어나셨습니다. 죽은 것도 몸이요, 일으켜지신 것도 몸입니다.
-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한 몸’이었습니다(히10:5).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설교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이 더욱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행하신 일들, 그 몸에 이루어진 일들에 주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습니다(롬7:4).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십니다(골1:22).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히10:10).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들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벧전2:24).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골1:22).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벧3:21).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엡5:31).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신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입니다. 고린도전서 6:17, [.....](고전6:17).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하고, 장차 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2, [.....](고후11:2). 현재 우리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4b). 율법에 대해 죽지 않는 이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조차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4)라고 말한 대로 우리 역시 자신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고 곧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라나고, 강건해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